

중세 전성기의 풍운아 '피에르 아벨라르'

서양의 금서 이야기 — 9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킨 후 종교도시로 명맥을 유지하던 옛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은 10세기 이후부터다. 상인과 장인계층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다시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도시의 발전은 서구 지성사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도시민 가운데 지식인 계층이 형성되면서, 고대의 지적 유산들이 되살리는 작업이 활발히 펼쳐진 것이다.

우리는 1050년부터 르네상스에 이르는 중세 후 반기를 다시금 전성기(1300년까지 250년간)와 그 뒤의 쇠퇴기로 나눌 수 있다. 자크 르 고프는 《중세의 지식인들》에서 샤르트르의 베르나르의 말을 인용해, 전성기의 시대정신을 보여줬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다.” 12세기에는 이처럼 문화의 진보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고대 거인들의 키만큼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여겼다. 그런데 고대인의 어깨에 무릎을 설 수 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들은 뭐니뭐니 해도 도시인이었다. 사실, 서양에서 고대 로마시대 이후에도 도시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그렇긴 해도,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뒤 행정과 군사적인 도시는 대성당·주교법정·교회·성인들의 유물을 가진 종교도시로 성격을 바꿨다. 그러나 10세기와 11세기, 상업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면서 옛 도시는 활기를 띠게 됐고, 새로운 도시가 상업과 생산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세 후기의 도시는 여전히 수호성인, 교회와 그밖의 종교기관에 충실하면서도 상업지구를 확장하고, 정치와 법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리하여 교회·상업·도시 자치정부는 도시를 둘

러싼 벽 안에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했다. 그렇긴 해도, 상인들은 도시의 바깥 지역까지 힘을 뻗어나갔다. 이렇듯 상업이야말로 도시를 경제적 중심지로 바꿔 놓은 요소였다. 상인과 장인은 새로운 도시의 활력소 노릇을 하면서 천천히 권력을 키워나갔다.

지식인 계층이 등장하다

10세기 후반부터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민이 늘어났는데, 그 결과는 정치와 사회의 조직을 바꿔놓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세계까지 바꿔놓았다. 14세기까지는 비록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가 전체인구에 비해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럽인은 권리·재산·사회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권리증서·면장·정부의 조사표 같은 문서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

중세사가인 홀리스터(C. W. Hollister)는 1100년경 교황이 발행한 증서는 연간 35가지가 남아 있는 데 비해서, 14세기 초에는 이 숫자가 3600가지로 늘어났으며, 왕이 발행한 문서도 역시 100여 배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재정적인 문서도 점점 더 널리 이용되는 동시에 더욱 체계를 갖췄다. 영국에서는 1110년경에, 프랑스에서는 1190년경에 왕실 수입을 해마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2세기의 지식인들이 나타났다. 그 이전의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진정한 지식인은 그리스와 아랍의 과학 저작을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 서방세계에서 학문의 언어는 라틴어였다. 그러므로 지식인이 유클리데스의 수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의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논리학·윤리학을 그리스 말이나 아랍 말에서 라틴어로 옮겨서 소개했던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공헌이라 하겠다.

12세기에는 사회적 유동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독특한 집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콜리아르’라는 기이한 지식인 집단으로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기성사회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 이 탈자들이었다. 그들은 시기를 지어 사회를 비판했는데, 주로 교황·주교·수도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콜리아르들은 성직자들이 당시의 사회·정치·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회구조에 가장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에르 아벨라르는 콜리아르에 분류될 수 없었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헌을 한 지식인이었다. 최초의 교수로서 논쟁을 좋아했던 그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 참사회원인 펠베르의 조카딸 엘로이즈의 가정교사가 됐다. 1118년, 39세였던 그는 17세의 아가씨에게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 아끼까지 넣었다. 엘로이즈가 회생을 감수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아벨라르는 고집을 부려서 비밀결혼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펠베르는 아벨라르를 용서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아벨라르의 결혼을 공표해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생-

아르장퇴이 수녀원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필베르에게 말하고, 필베르는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와 관계를 끊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안 필베르는 자기가 놀림감이 됐음을 알고 아벨라르를 거세했다. 이렇게 해서 아벨라르도 생-드니-앙-프랑스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신학논쟁 불러일으킨 아벨라르의 저서들

아벨라르는 수도원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 쓴 최초의 신학논고로 말미암아 1121년 수아송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책은 불타고, 비난을 견디지 못한 아벨라르는 생-드니 수도원을 떠나 노장-쉬르-센느에 조그만 교회를 지어 '성령'(Paraclete)에게 바쳤다. 1125년에 생-질다-드-뤼의 수도원장에 선출된 그는 1132년 《나의 불행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자신이 겪은 시련을 자세히 서술했다. 그리고는 엘로이즈와 편지를 주고 받았고, 연애편지의 고전을 남겼다.

아벨라르는 신학적 논쟁에 빠져 들었고 박해를 받았지만, 클뤼니 수도원장으로 있던 존자 피에르의 호의로 클뤼니 수도원에 몇 달 머문 뒤, 샬롱-쉬르-손느에 있는 클뤼니 수도원 계열의 작은 수도원에서 1142년에 숨을 거뒀다.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그가 세웠던 성령교회로 옮겼다. 그리고 1164년 수녀원장을 지내던 엘로이즈가 죽자 아벨라르의 곁에 묻어졌다. 1817년, 두 사람은 파리의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에 함께 묻혔다.

우리는 그의 연애와 불행을 보기 위해 그가 남긴 신학적 업적을 보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는 원체 지적으로 오만해 파리 부근의 교사들과 논쟁을 일삼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굴복시키는 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많은 미움을 샀다. 그의 첫번째 책이 1121년에 불 속에 들어갔지만, 《긍정과 부정》은 그의 사상을 잘 보여준다. 변증법적 토론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9세기 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제나와 13세기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결해준다.

아벨라르는 《긍정과 부정》에서 성서·교부·공의회·교황을 자유로이 인용하면서 신학적 문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는 서간문학의 고전이 됐다.

중세의 신학적 논쟁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가톨릭 교회는 수백년 동안 검토해오던 유대교 문학과 《탈무드》를 단죄했다. 이 책들은 불경스럽고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불태워졌다. 《탈무드》에 대한 박해는 훗날 유대교도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다. 일반신도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사악한 무리가 바로 유대교도라고 믿은 탓이었다.

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요컨대, 그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서로 어긋나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다음 세대의 종교법학자와 철학자들에게 물려줬다. 이들은 그가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준 문제에 대해

모순을 제거하고 결론을 끌어내게 될 것이다.

마침내 불태워진 《탈무드》

중세의 신학적 논쟁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가톨릭 교회는 수백년 동안 검토해오던 유대교 문학과 《탈무드》를 좀더 꼼꼼하게 검토하던 가운데, 마침내 1144년 파리에서 불경스럽고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불태웠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책을 공식적으로 화형에 처한 첫 사례다. 1239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모든 유대교 서적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명령을 수행한 나라는 오직 프랑스뿐이었다.

1244년, 이노켄트 4세는 프랑스의 루이 9세에게 《탈무드》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명령했다. 1248년에도 똑같은 명령이 있었다. 이 때 파리에서는 김수레 20대분의 책을 태웠다. 프랑스에서 1254년에 다시 한번 명령이 떨어졌다. 1264년, 로마에서 교황 클레멘트 4세는 《탈무드》 검열위원회를 구성해 그리스도교의 품위를 해치는 구절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3년 뒤, 그는 아라곤의 왕에게 지시해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탈무드》를 종교재판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유대교도에게 모세 5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탈무드》는 14세기 이후에도 박해를 받았다.

유대교도도 《탈무드》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가르쳤지만, 일반 신도는 유대교도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할 구실만 찾고 있었다. 중세의 경제활동에서 유대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같은 이유에서 박해를 받았다. 1300년경에는 재산을 노리는 군주들에 의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유럽에도 금융업자가 생겼고,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사회적 필요성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